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통한 인류평화

- 인간개조를 통한 세계개벽 -

崔 東 熙 *

目 次

- I. 인간의 자각과 성숙
- II. 인류로서의 참된 자각
- III. 참된 인류평화를 위한 근본조건

I. 인간의 자각과 성숙

인간은 우주(대자연) 속에서 태어났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인류가 우주생성(宇宙生成; 天地開闢)을 알아내려고 힘써 왔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탐구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우주의 그 놀라운 규모와 생성은 우리 인간의 '탐구능력'의 발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아는 능력'이 무한히 발전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다. 인류는 인류일 뿐이고 하느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류를 존중하지만 과거의 인류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역사를 떠나서 독불장군으로서만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산다. 이렇게 우주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다. 우주가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우리 삶의 환경이라고 말하기가 다소 어색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어느 누구의 삶도 저 높고 낮은 구름들이 흐르는 해와 달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이 뜨고 지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떠나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그저 소박하게 하늘이라고 일컬어 온 것이 바로 우주(宇宙)다. 우리 겨레는 우주를 과연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한문”(漢文)을 쓰게 되어 “우주”(宇宙)라는 말을 써왔다. 1527년에 우리 사회에서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 朝鮮中宗 二十二年)는 “宇”를 “집우”라 하고 “宙”를 “집주”라 하였다. 이것은 16세기 전반쯤에 우리 사회에서는 “우주”를 알기 쉽게 “집”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무렵의 우리 지식인들이 “우주”를 무한히 연속되고 무한히 큰 “집”이라고 이해하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우주”가 집이라고 한다면 “우주”안에 있는 만물은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일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온 우주 곧 온 자연을 하나의 가족 곧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만물을 품고 있는 우주 또는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보는 경향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성숙함에 따라 더욱 더 커지고 현실화한다. “중화(中和)를 다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제대로 자란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第一章) 주자(朱子)의 풀이에 따르면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 같은 감정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의 사람 본성이 “중”(中)이고 감정들이 “나타나서 모두 절도에 잘 맞는 것”(發而皆中節)이 “화”(和)다. 이렇게 인간이 그 순수한 본성에 따르고 본성을 절도에 맞게 감정으로 표현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지키고 만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이 “중화”(中和)를 다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지키고 만물이 잘 자랄까? 이 “중화”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행실의 기준(行動規範)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착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천지가 제자리를 지키고 만물이 잘 자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주(자연)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행하고 우주는 자연으로서 그 법칙대로 움직인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자연이 따라서 제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날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도덕적인 경지에서 사람이 정말 착하면 자연(천지·만물)도 제

대로 움직인다고 믿은 혹은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종교적·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착하면 자연도 제자리를 지킨다고 믿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찍부터 유교를 받아들인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유교 교육을 통해 사람이 정말 착하면 천지 만물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이 많이 지식계층에서 교육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 (1) 여기에도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에 밀접한 ‘의존 관계’(依存關係)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람은 본래 천지 만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천지 만물은 엄청나게 크고 많지만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고 또 적다는 생각이 의심할 나위없이 전제되어 있다. (2) 그러나 사람이 “중화”를 다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지키고 만물이 다 잘 자란다고 엄숙히 말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의존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지에서는 ‘지배관계’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크게 주목된다.

여기서 인간의 대자연(천지·만물)에 대한 ‘의존관계’와 ‘지배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성숙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본래 자연에 대해 ‘의존관계’로부터 ‘지배관계’로 보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저마다의 인간의 성숙 과정에서도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도 성숙의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의존 관계로부터 자연에 대한 지배 관계로 이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정말 무서워하였다. 지금은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연에 대해 ‘지배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일까? 여기에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대자연에 대한 ‘지배관계’는 어디까지나 종교적·도덕적·철학적인 문제일 뿐이다. 결코 문리적·기술적인 힘에 의한 지배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성숙된 삶의 이상이 문제될 뿐이므로 대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참된 이해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화를 다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제대로 자란다’는 교훈이 역시 중요한 암시를 준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중

화를 다한다”(致中和)는 것일까? 「예기정의」(禮記正義) 중용(卷第三十一 中庸)의 풀이(後漢의 鄭玄註·唐의 孔穎達疏)에 따르면 “임금님”(人君)이 “중화를 끝까지 다한다.”(致極中和)고 한다. 이렇게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홀로 “중화”를 끝까지 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천지만물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같은 해석은 역시 후한의 정현(鄭玄, 기원 127-200)으로부터 당나라 공영달(孔穎達, 기원 574-648)에 이르는 시대의 윤리와 지식의 실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는 ‘인간 일반’(한 인류로서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남송의 주자(朱熹, 1130-1200)는 “내”(吾)가 중화를 다하면 천지 만물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하였다.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다.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된다.“(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四書集注」 中庸, 第一章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의 集注)

이와 같이 주자는 “나”(吾)와 천지 만물이 본래 한 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吾)가 중화를 다하면 천지만물이 다 제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吾)란 ‘인류로서의 나’라는 말인데 주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내가 온 인류의 한사람(一員)으로서 어느 누구와도 동등하다는 보편적인 자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끼리 서로 동등하다는 자각은 이미 「맹자」(孟子)에 잘 나타나 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공자 제자인 안연(顏淵)의 말을 소개하였다. “순(舜)임금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크게 되려고 힘 쓰는 사람은 역시 순임금과 같이 될 수 있다.”(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孟子」 勝文公上) 이와같이 맹자는 순임금이나 안연이 다 같이 인간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하다는 자각을 가졌다. 이러한 맹자의 자각을 주자가 이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자가 여기서 말하는 “나”(吾)는 인류의 한사람으로서의 동등한 “나”일 뿐만 아니라 저 천지 만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나”라는 것

이 매우 주목된다. 여기서 주자의 사상을 다시 정리한다면 (1) 사람은 사람끼리 다 같이 동등한 “나”(吾)라는 경지가 성립한다. 순임금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2) “내”가 바르면 천지 만물도 바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천지만물은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간추리면 (1) 인간으로서의 모든 “나”는 동등하다. (2) 나와 자연(우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며 “내”가 중심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인 설명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자의 학설을 일단 떠나 저 주자로부터 그 동안 동아시아에서 주자의 이 확신에 공감하여 온 많은 사람들에 이르는 어떤 공통된 “인간 이해”(인간관)만을 문제삼으려고 한다.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우주)의 상호관계만을 문제삼으려고 한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는 우주생성론(천지개벽설)에서 다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철학적·종교적인 깊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다. 대순진리에서는 “정신개벽”에 속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정신개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자연이 중심이 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적응하는 관계다. 이 적응관계를 크게 소극적인 관계와 적극적인 관계로 나누어 대조적으로 맞세워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인간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 밑에서 감각적·지각적인 능력으로 자연의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다. 날씨가 꺾으면 동굴 속으로 피하고 생존을 위해 들·산·물에서 수집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적응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정신적인 능력으로 문화를 개발해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조건에 적응하게 된다. 이 과학·기술에 의한 적극적인 적응능력은 오늘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인간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언제나 일정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중화를 다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제대로 자란다”는 확신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확신은 과학·기술과는 그 차

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시 인간중심의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라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천지개벽에 대한 정신개벽을 과연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된다”는 우리 전통사회의 확신이 과연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天地)는 “만물”(萬物)을 품고 있는 우주 곧 “은 자연”을 말한다. 오늘날 “천지의 마음”(天地之心) 곧 자연의 마음을 글자 그대로 믿기는 매우 어렵다. 주자나 그에게 귀를 기울인 우리 전통사회도 “나의 마음”(吾之心)과 “천지의 마음”(天地之心)이 글자 그대로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지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만물을 품고 있는 “천지” 전체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곧 자연 전체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 하나로서의 ‘대자연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천지 만물을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라고 본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서의 자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성숙된 지성을 갖추었던 주자가 “천지의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마음”과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자연(우주)은 본래 “나”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합적인 존재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자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어떤 유기적·통일적인 존재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주자가 어느 정도로 자연도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이 “나”와 같은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믿은 것은 분명하다. 주자가 이렇게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게 된 것은 그 철학적인 근거를 떠나 그의 인간적인 성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 천지·만물을 “나”의 삶과 깊이 연관시키면, “나”의 삶이 그만큼 성숙하면, 반드시 천지·만물도 “나”와 같은 유기적·통일적인 존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천지·만물이 통일적인 유기체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여기에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차원에서 인간이 자연과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자연과 인간은 다 같이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본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자연을 생물과 그 환경으로 나누어 본다. 생물 아닌 자연을 무기적인 자연으로 보지만 이것은 생물의 환경으로서 생물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 생물과 밀접하게 서로 관계하는 환경을 굳이 떼어내서 무기물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어찌면 낡은 생각이다. 오히려 “자연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여 생물의 환경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체적인 생각이 아닐까?

Ⅱ. 인류로서의 참된 자각

1. 생명의 세계와 자각적인 인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자는 “천지의 마음”(天地之心)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썼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저 근대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과 정신을 더욱 뚜렷이 구별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자연’(nature)이라고 하면 무기물적인 자연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생물은 그 엄청나게 큰 자연(우주) 속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 가운데서 또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우리 인류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주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천지”(자연)라고 하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지의 마음”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자연과학 발전과정에서는 자연이 물질적인 존재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유물론적인 사상도 만만하지 않은 기세를 떨쳐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동안 “자연”은 살아있다는 표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연과학도 그 동안 새로운 방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금은 생물을 그 환경과 분리해 정적으로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생물과 환경을 복잡한 체계 속에서 미묘하게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관계라고 본다. 생물의 전체적인 환경 속에는 우리 지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많다. 해·달·계절의 주기(周期) 따위에서 작용하는 우주의 각종 힘들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금 과학 쪽에서도 생물과 환경을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동적인 시스템’(system)이라고 본다. 이것은 지난날 사람들이 “자연”을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온 자연을 크게 생물과 그 전체환경으로 나누고 이 생물과 전체환경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이 생물과 환경으로 갈려 서로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생명활동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자연과학을 넘어선 종교·철학의 경지에 속한다. 이러한 경지에서 지난날의 생명철학을 다시 음미해 볼 수 있다. 거기에 인간의 영원한 본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의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독특한 생명철학이 우선 주목된다. 스피노자(Bruch de Spinoza, 1632-1677)는 “생성하는 자연”(natura naturans)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 자연”(natura naturata)으로서)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생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하는 자연”은 온갖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타난 것이 온 자연이며 자연 속의 온갖 만물이다. 이렇게 생명(자연)이 필연적인 인과법칙에 따라 나타난 것이 곧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떠나서 따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 자연(생명)을 곧 신(神, 절대적인 존재)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이 만물 속에 있다는 “내재론”(immanentism)으로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근대의 자연과학적인 정신을 지나치게 발휘하여 독자적인 생명철학을 내세웠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근원적인 생명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에 근대적인 인과법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근원적인 생명과 만물 사이에는 마침내 “동일성”(同一性)이 성립하게 되어 만물의 독자성이 부정된다. 사실 스피노자는 근원적인 생명(자연, 神이기도 함) 속에 만물이 있는 것은 마치 삼각형의 세 내각이 2직각(180도)인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삼각형의 세 내각은 본래 2직각과 동일하다. 그런데 자연 속의 만물이 과연 근원적인 생명과 수학적으로 동일할 수 있을까?

좁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중국 고전인 「노자」(老子)에 나타난 생명철학을 살펴본다. 여기에 나타나는 “도”(道)는 감각·지각이나 일반적인 사고능

력에는 알려지지 않는 심오한 존재다. 이와 같은 “도”는 본래 “무위”(無爲, 일반적인 동작이 없음)지만 근원적으로는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한다. 이와같은 “도”를, 그 만물을 생성하여 그치지 않는 측면을 특히 “자연”(自然)이라고 한다. 스피노자는 “생성하는 자연”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노자」에서는 “생성하는 자연”을 “도”라고 한다. “인간은 땅(地)을 본받고 땅은 하늘(天)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老子」二十五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스피노자의 “생성하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역시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생명(道)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여기저기에서 설명되어 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道)의 움직임이고 연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의 만물은 유(有)로부터 생기고 유는 무(無)로부터 생긴다.”(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老子」四十章) 이렇게 만물이 유(有, 여기서는 天地를 뜻함)로부터 생기고 유는 “무”(無로부터 생긴다고 한다. “무”는 도(道)를 뜻하며 근원적인 생명을 뜻한다. 이를테면 근원적인 생명(道)으로부터 천지·만물이 차례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지·만물은 다시 근원(無, 도를 뜻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와같이 「노자」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역시 중국 고대사상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자」나 스피노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주자(朱子)는 그 사상적인 배경과 이론적인 기반이 서로 다르지만 어떤 근원적인 생명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고 다시 만물이 그 생명으로 돌아간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같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과 운동에 대한 깊고도 엄밀한 이해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의 우리 인간적인 성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이해는 역시 헤겔(G.W.F. Hegel, 1770-1831)의 “보편적인 생명철학”(general philosophy of lif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여기에 필요한 두 가지 측면을 간단히 살펴본다.

1) 생명의 참된 본질

생명이란 다음과 같은 “순환과정의 전체”다. 곧 하나의 생명(생성하는 자

연)이 다양한 생명의 형태(생성된 자연)로 나누어지는(分化) 운동과 거꾸로 이 다양한 생명 형태로부터 다시 하나의 생명으로 뭉치는(統合) 운동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온 과정이다. 헤겔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나타냈다. “자기를 전개(展開)하는 운동과 이 전개를 해체하는 두 운동 속에서 고스란히 자기를 유지하는 전체”가 곧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표현하여도 쉽게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1) 나누어지기 이전의 생명도 (2) 나누어지는 과정도 (3) 나누어진 다양한 생명 형태도 (4) 다시 뭉치는 과정도 (5) 다시 뭉쳐진 하나의 생명도, 그 어느 것도 본래의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 이 모든 계기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몇가지 측면을 추려본다. (가) 여기서는 온 자연을 하나의 움직이는 존재로 보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살아 있는 자연)이라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노자」나 스피노자의 생명철학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이 여러 형태로 분화(分化)하고 다시 하나로 통합(統合)하는 ‘두 운동의 순환과 전 전체’를 바로 생명이라고 보는 대목이 정말 참신하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한없이 움직이는 생명의 운동전체’, 한없이 살아 움직이는 자연전체가 문제다. (나) 이렇게 밀(근원)도 끝(목적)도 없는 “살아 움직이는 자연”이야말로 헤겔이 생각하는 “생명”이다. 여기서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역학적인 시스템을 자연이라고 보는 근대과학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은 나아가서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셈이다.

(다) 그런데 생명의 운동 과정의 전체에 과연 근원과 목적이 없을까? 물론 생명의 움직이는 과정 전체에는 근원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원과 목적이 있다고 하려면 그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각은 본래 자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갖출 수 있다. 여기에 매우 어려운 미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무한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각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생명이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을 자각하는 주체(자각적인 인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헤겔에 따르면 본래 대상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단계에 따라서 그 대상도 다르게 된다. 이를테면 지각이 주체인 단계에서는 여러 성질을

갖춘 물건들이 그 대상이고, 오성(Verstand)이 주체인 단계에서는 물건들을 움직이는 “힘”(Kraft)이 대상이다. 오성 다음 관계인 자각(자기의식)의 단계에서는 바로 “생명”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주체의 단계에 따라 대상이 다른데 주체가 자각적인 존재일 때 그 대상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무한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각적인 인간의 상대는 ‘살아 있는 자연’(생명)이다.

2. 인간은 자각적 · 자립적인 존재라는 확신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났다.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자연은 더욱 더 인간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더욱 더 엄청난 “대자연”(大自然)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같은 자연 속에 있는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연이 그렇게 크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비로소 알아낼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은 크지만 그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성숙함에 따라 자연을 더욱 더 널리 살피고 깊이 생각한다. 이리하여 여러 가지 생명철학도 나타나고 자연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도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마침내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온 자연을 ‘한없이 움직이는 생명 과정의 전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온 자연이 하나의 ‘생명 운동의 과정’이라면 아무리 엄청나게 커도 자연은 육체를 통해 인간과 이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체’인 셈이다. 저 대자연(우주)이 우리 인간의 육체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면 인간이 대자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된다.”라고 말한 주자의 신념도 이런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양이 높은 사람들이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의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대자연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인간이 성숙됨에 따라 자연을 전체적으로 ·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기적 · 기계적인 통일과 유기적 · 자율적인 통일로 갈라

지게 된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길은 역시 유기적·자율적인 통일체라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과학에서 자연을 생물과 전체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주목된다. 그리고 자연을 생명의 변증법적인 운동으로 보는 헤겔의 독특한 생명철학이 주목된다.

그러나 헤겔에 있어서는 생명철학은 정신철학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생명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를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 생명을 초월해야만 정말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참된 평화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위에서 본 생명철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헤겔에 있어서는 생명의 세계(살아있는 자연)의 극복을 통해서만 정신의 단계가 열린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라고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세계’ 아닌 ‘정신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 정신의 세계를 깨닫는 순간에만 자연을 생명의 세계라고 깨닫게 된다. 이것을 “정신개벽”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각적인 인간의 결정적인 성숙의 순간이다. 여기서부터 참된 자유(참된 인류 평화)를 위한 길이 열린다.

흔히 “욕망”을 버리라고 한다. 듣고 보면 무슨 깊은 뜻이 있는 듯 한데 분명하지는 않다. 돌레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먹고싶어 하는 마음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실감 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을 확대하여 소비한다는 뜻으로 넓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라면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인생의 진실을 잘 나타낸 말이다. “먹는 것이 미덕이다.”(소비가 미덕이다.) “먹는 것이 생산이다.”(소비가 생산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천지·만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먹기 위해 사는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우주)이란 과연 무엇일까? 먹기 위해 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것’(생명체)이다. 이와 같이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대상인 자연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일 수밖에 없다. 헤겔이 매우 어렵게 매우 깊이 밝히고 있는 “생명”은 인간이 먹기 위해 바라는 “욕망”의 대상인 ‘생명의 세계’(살아있는 자연)다. 이렇게 이른바 객관적인 대상은 본래 우리 인간의 주관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먹기 위해 사는 단계 곧 욕망 단계의

주관은 반드시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를 대상으로 삼는다.

물건들과 그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주관의 단계가 있다. 상식적인 주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역학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는 주관의 단계가 있다. 과학적인 주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보는 주관의 단계가 있다. 성숙된 주관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주관이란 무엇일까? 바로 위에서 “욕망”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욕망”이 성숙된 주관이라는 말인가? 위에서 “먹는다”는 말을 “소비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였듯이 “욕망”이라는 말도 “성숙된 주관”이라는 좋은 뜻으로 쓸 수 있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먹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여 물고기를 먹어 왔고 사냥을 하여 짐승을 먹어 왔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어 왔다. 이렇게 인간은 먹으려는 욕망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해 왔다. 이것으로 먹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하냐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욕망의 참된 뜻을 이해한다면 욕망이야말로 성숙된 주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 물고기도 짐승도 그리고 곡식·야채 따위도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저 “먹고도 굶어 죽는다”는 욕심 많음을 뜻하는 것일까?

인간이 대상들을 마구 먹어 버리려고 하는 욕망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욕망의 대상은 살아 있는 것 곧 생명의 세계라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생명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욕망(욕망 단계의 주관)은 ‘자기 자신의 자립성만을 확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헤겔 철학에선 욕망은 자기 자신의 자립을 확신하려고 닥치는 대로 대상을 먹어 버린다고 한다. 인간이 물고기·짐승·곡식·야채 따위를 마구 먹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립성이 없고 인간 자신만 자립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욕망은 대상을 다 먹어 버리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욕망은 자기 자신의 자립을 확신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욕망이 대상을 마구 먹어 버리지만 곧 다른 욕망이 생겨 그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욕망이 있는 동안에는 욕망의 대상이 언제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욕망은 그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그 대상의 자립성을 확인하게 된다. 욕망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각적인 인간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자립성을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욕망 단계의 우리 인간 앞에 있는 세계는 이미 물건들의 세계도 아니고 역학적인 법칙으로 얽혀 있는 하나의 시스템도 아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생생한 세계일 뿐이다. 이 생생한 대상(세계)을 헤겔은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복잡한 구조적인 연관을 갖춘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세계” 혹은 “살아 있는 자연”이라고 표현해 왔다. 이것은 다양한 생명체(생명의 형태)를 품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그 나름대로 자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명체들은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자각을 갖춘 인간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욕망 단계의 인간은 생명체의 자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생명체들(생명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을 먹어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립과 자유를 확신하려고 힘쓴다. 이렇게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생명 세계(살아 있는 자연)의 독자적인 자립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생명철학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자각을 통해 생명의 세계를 먹어 버리려고(소비하려고) 하지만 뜻을 이룰 수는 없다. 생명의 세계는 본래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욕망의 단계를 넘어설 수 밖에 없다. 생명의 세계를 상대로 하여 그 자립성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자립성만 확신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본래 통할 수 없는 길이다. 여기서 길은 욕망의 단계를 넘어서 한층 더 높은 정신의 단계에 오르는 것 뿐이다.

왜 생명의 세계를 상대로 하는 욕망은 그 자립·자유를 길이 막히고 마는 것일까? 생명의 세계는 역학적인 세계와는 달리 살아 있어서 스스로 움직인다.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넓은 뜻으로 살아 있는 것)의 특성 차이는 그 존재 단계가 다르다. 생명적인(자연적인) 것과 자각적인 것의 특성은 더욱 차이가 크다. 욕망은 초보적인 정신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것을 상대로 하였다. 물론 생명적인 것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자각적인 단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래 자각이 없는 생명을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낮은 자각 단계다. 왜 그런가? 생명은 본래 자각이 없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립성을 가졌다. 그런데 자립성을 가진 상대의 그 자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뿐이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자립성을 부정(양보)하는 길이다. 그런데 생명은 본래 자각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자각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의 자립·자유에 대한 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같은 자각적인 인간을 상대하는 것 뿐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립·자유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면 행복은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자립·자유에 대한 확신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서 또 스스로 자립해 있는 것은 인간 뿐이다. 이렇게 참된 행복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Ⅲ. 참된 인류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세계개혁을 위한 참된 자각과 교양)

1. 세계개혁의 원리에 대한 자각

자각 단계의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높은 체계적인 삶을 펼쳐 나가야 한다. 엄청나게 큰 우주(대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는 사람은 대자연을 하나의 질서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의한 시스템보다 오히려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성숙된 사람에게 좀 더 친근할 수 있다. 헤겔은 저 근대과학의 소용돌이 속에서 넓은 시야와 깊은 사색을 통해 독자적인 생명철학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자각 단계의 인간은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를 대상으로 삼게 된다. 생명세계는 스스로 그 분화(分化)와 통합(統合)의 이중 운동을 통해 길이길이 운동하는 과정의 전체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직접 이어져 있어서 인간의 밖에 있는 남이 아니다. 이렇게 나 밖에 대자연이 없고 대자연 밖에 내가 없다는 경지를 감탄하는 것이 그 동안의 생명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헤겔 생명철학에는 근대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생명의 세계(살아있는 자연)는 자각적인 인간(정신적인 존재)보다 낮은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립·자유를 위해서 생명 세계(산 자연)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높은 단계의 자각을 위해 어떻게 자연(산 자연, 생명 세계)의 정체를 알고 극복할 수 있을까? 자연을 부정하고 어떻게 인간은 자연 아닌 공동체를 발견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참된 사회를 위한 교양(Bildung, 인격형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욕망 단계의 인간(주관)은 자기 자신의 자립에 대하여 큰 자신을 가졌다. 자기 밖의 대상은 자립성이 없다고 하여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려고(소비하려고) 한다. 지금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소비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소비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있다. 이렇게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 자립만을 확신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각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자각적인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일 뿐이다. 이 확신이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른바 욕망의 단계에서는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자립성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들레의 모든 대상을 소비하려고 한다. 좀 인상적으로 말하면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린다. (여기서는 좋은 뜻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쁜 뜻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다가 나라까지 먹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소비하여도 아무리 먹어 버려도 대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대상들은 본래 재생능력을 갖춘 “생명의 세계”(산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새로운 교양을 얻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자립을 확신하려고 대상을 부정하고자 하다가 대상(생명세계)의 자립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마침내 대상의 영역(생명 세계, 산 자연)에서는 인간의 자립·자유에 대한 확신이 통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립성에 대한 확신은 자각적인 인간의 근본 조건이다. 이리하여 인간은 그 자립성을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눈길을 “대상의 세계”(생명 세계)로부터 “자각적인 존재”(인간)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립성을 확신하기 위해 왜 생명 세계를 벗어나야 하는가? 생명 세계를 벗어나야 하는가? 생명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저마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물고기·짐승·곡식 따위가 모두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동안에는 욕망의 대상으로서 엄

연히 욕망 앞에 맞서 있다. 이러한 상태를 '욕망 대상들의 자립성'이라 한다.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이 있는 동안에는 담배라는 대상은 엄연히 있다. 담배를 끊는 길은 담배라는 대상을 없애는 길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다. 담배라는 대상은 본래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사람들이 굳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의 자립·자유를 누리려는 충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자신의 자립·자유를 위해 담배를 피워 버린다면 (소비한다면) 아예 모든 담배를 다 피어 버려야 한다. 이래야 역시 담배는 우리 인간처럼 자립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이 있는 동안에는 담배는 영원히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대상은 본래 이렇게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대상이 자진하여 제 자립성을 부정해(양보해) 주지도 않는다. 그는 본래 그럴 수 있는 자각이 없다. 이렇게 생명 세계는 엄연히 자립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그 자립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이래서 인간은 이 세계에서는 자기 자립성을 확신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인간은 드디어 자각을 가진 인간을 상대할 때에만 자기의 자립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자립성을 확신하면 그 다른 사람은 그의 자립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자각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 자립성을 마찬가지로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서로 자립성의 확신이 충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인간의 새로운 자각 단계를 문제삼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의 세계'(살아 있는 자연)를 벗어나서 자각적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단계를 문제 삼고 있다. 생명의 세계를 상대로 하는 단계에서는 자각적인 인간의 자립과 생명 세계에 있는 대상(물고기·짐승·곡식 따위)의 자립 사이에 충돌이 있다. 이를테면 물고기를 먹어 버리는 것은 인간의 자립을 뜻하지만 물고기 쪽으로는 자립성의 부정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의 물고기를 먹어 버리면 또 먹으려는 욕망이 생기는 동안에는 물고기가 대상으로서 언제나 있다는 쪽으로는 물고기는 자립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각적인 인간이 자각적인 인간을 상대하고 있다. 이 자각의 단계에서는 한쪽의

자립이 다른 쪽의 자립도 되어 서로 함께 자립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인정”(相互認定, *wechselseitige Anerkennung*)이다. 이 원리는 성숙된 인간끼리는 예로부터 암암리에 전제되어 왔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이것을 다소 달리 표현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상호인정”이지만 이것을 원리로서 엄밀히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헤겔은 “상호인정”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양쪽은 서로 다른 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서로 인정한다.”(헤겔, 「정신현상학」 주루캄프판, 147쪽)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1) 서로 상대하는 양쪽이 서로 다른 쪽을 인정하고 있다. (2) 서로 상대하는 양쪽이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 (1)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인간이란 본래 서로 인정하는 자각적인 존재라고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2)는 사람이란 서로 인정하는 ‘자각적인 존재’라는 근거(원리)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본래 서로 인정하는 존재인가? 과연 “상호작용”이 자각적인 인간의 차원 높은 원리인가? 여기서는 그 일단을 간단히 이해하는데 그친다. 헤겔에 따르면 이 “상호인정”의 원리가 바로 인간이 참되 사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원리다. 따라서 이 원리는 본래 자각적인 존재의 본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를테면 나는 내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부정한다. 그런데 남이 없으면 나도 없으므로 오히려 남이 곧 나다. (이 대목이 높은 자각을 요청하는 어려운 고비다.) 따라서 남을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여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자유를 위해 남을 부정하는 것이 곧 남이 그 자유를 위해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남을 부정하면 남이 나를 부정한다. 따라서 내가 남을 긍정하면 남이 나를 긍정한다. 곧 서로 부정하고 서로 긍정하는 것,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만족하는 것이 “상호인정”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통일”의

경지에서만 제대로 실현된다.

2. 세계개벽을 위한 교양(인정받기 위한 투쟁)

여기서는 자각적인 인간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눈다. 곧 욕망적인 단계와 정신적인 단계로 나눈다. 욕망적인 단계에서는 생명 세계의 그 무뚝뚝한 자립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인간의 자립·자유는 자각적인 인간 사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각적인 존재 사이에 있는 “상호인정”의 원리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이 원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인간은 그 자각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립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립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서둘렀다. 여기서 인류사회의 역사를 돌아해보면 노예제도가 눈에 뜨인다. 이 노예제도에는 인류가 서로 남을 지배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자취가 남아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쪽은 주인(지배자)이 되고 진 쪽이 노예로 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 노예는 ‘역사의 필연성’에 따라 해방되었다. 헤겔은 여기에 주목하여 인간이 저 “상호인정”의 원리를 체득하는 과정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 실감이 나게 해석하였다.

헤겔은 서로 지배를 위한 원시적인 전쟁에 대해 서로 인정을 위한 정신적인 싸움을 맞세웠다. 이 전쟁과 싸움의 미묘한 대조는 한편으로는 노예제도를 다시 조명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정신적인 교양을 부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본래 자각적인 존재는 인류(人類)라는 “유”(類, *Gattung*, 보편성)를 자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생명 세계에 속하는 대상적인 존재는 본래 생명류(生命類)라는 “유”(類, 보편적인 전체)에 대한 자각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자각이 없다. 이에 대해 인간은 역사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과정과 개별적인 인간의 성숙과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중국 문화권에서 역사를 인생의 거울(鑑)이라고 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성숙과정에서 인류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헤겔은 확신한다. 이렇게 보면 ‘지배를 위한 원시적인 전쟁’과

“인정을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이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인정을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을 간단히 살펴본다.

(1) 결단에 의한 자립(지배하는 주인)

주인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워 마침내 싸움에 이겨 싸움에 진 쪽을 노예로 거느리게 되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가? 그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두려워하는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남이 할 수 없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결단으로 노예를 거느려 자연과의 관계도 노예를 통해 쉽게 해결한다. 자기는 힘을 쓰지 않고 자연(산 자연, 생명 세계)의 대상들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 곧 자연을 부정하고 자기 자립성을 확신할 수 있다.

(2) 노력(노동)에 의한 자립(일하는 노예)

노예는 자기 생명을 아꼈기 때문에 싸움에 져서 노예가 되었다. 주인의 당당한 자립을 부러워하면서 명령에 따라 죽도록 일만 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차츰 일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일을 통해 주인도 먹여 살리고 자연(생명 세계)도 정복하게 되었다. 이제 노예야말로 현실적으로 주인이 되었다.

헤겔은 여기서 인간이 참된 사회(공동체, 인류사회)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근본교양을 문제삼고 있다. 곧 인간과 인간의 참된 “관계”인 “상호인정”의 원리를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교양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상호인정을 향한 주인의 공적

주인은 저 지배를 위한 전쟁에서 용감하였듯이 ‘인정을 위한 싸움’에서도 공적이 크다. “상호인정”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저 생명의 세계(산 자연)에서 용감하게 탈출해야 한다. 노예는 생명(생명 세계에 속해 있음)으로부터 용감하게 탈출하지 못해 주인의 뒤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주인의 용단이 없으면 “상호인정”을 향한 인간의 단호한 결단이 내려질 수 없다. 이렇게 주인의 공로는 결정적으로 크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일방적으로 부러먹는 과정에서 향락으로 흘러 현실적인 노력이 없었다. 사실상 노예로 전락하였다. “상호인정”에서는 주관적인 생각만 있고 현실적인 이해도 체험도 뒤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곧 주관적인 확신이 객관적인 진리로 되지 못했다.

(2) 인류사회를 위한 노예의 큰 공적

생명을 초월하는 결단을 순간적으로 내리지 못한 노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기나 긴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차츰 주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주인”(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서 주인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 일도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일자체를 위해 곧 대자연을 변형하기(지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신나게 할 수 있다. 거치른 벌판이 논밭으로 변하고 오동나무가 멋진 옷장으로 변하였다. 이제 노예가 현실적으로 주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주인과 노예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다르면서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인과 노예는 순환하는 전체를 이룬다. 주인은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참된 사회를 위한 인간의 자각적인 교양은 높고도 넓어진다. 인류사회의 참된 평화가 “상호인정”의 원리를 현실화한다. 거꾸로 “상호인정”의 원리가 참된 인류평화를 실천한다. 이 경지가 바로 “세계개벽”이며 “지상천국”이다. 그 근본원리가 “상호인정”인데 이것은 바로 상제님(하느님)이 가르친 “해원상생”(解冤相生)이다. 이 “해원상생”이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표현하면 “상호인정”이라는 것은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한다.

끝으로 “대순진리”의 “목적”은 천지개벽·정신개벽·인간개조·세계개벽의 순서로 일사불란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천지개벽은 인간의 노력과는 일단 무관하기 때문에 교단의 목적에서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리해석에 있어서는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친다.